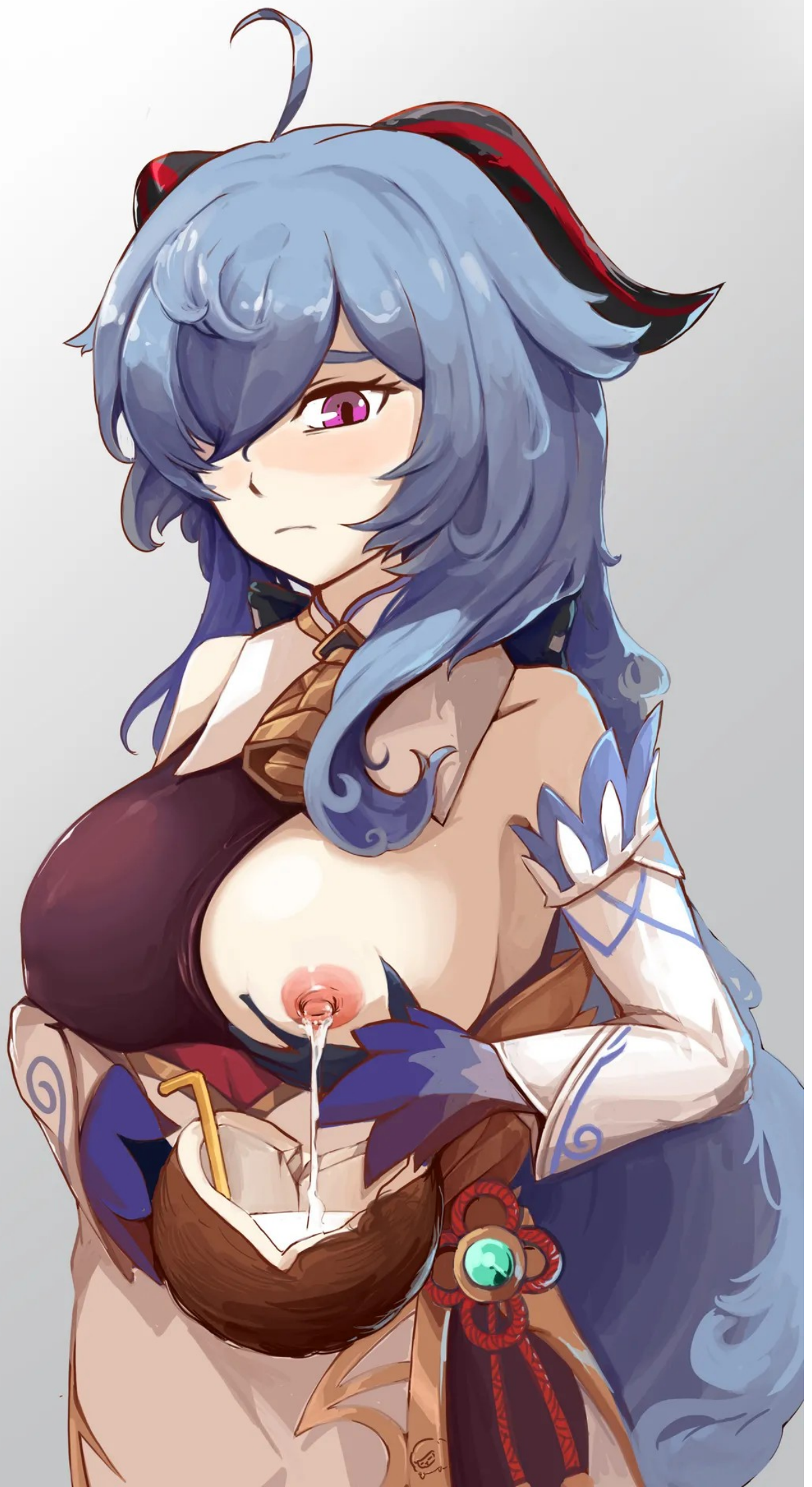


치치가 먹고싶어한다는 핑계로
감우에게 야자 우유를 부탁해 보았다.

그아이...
그 불쌍한 아이를
위해서라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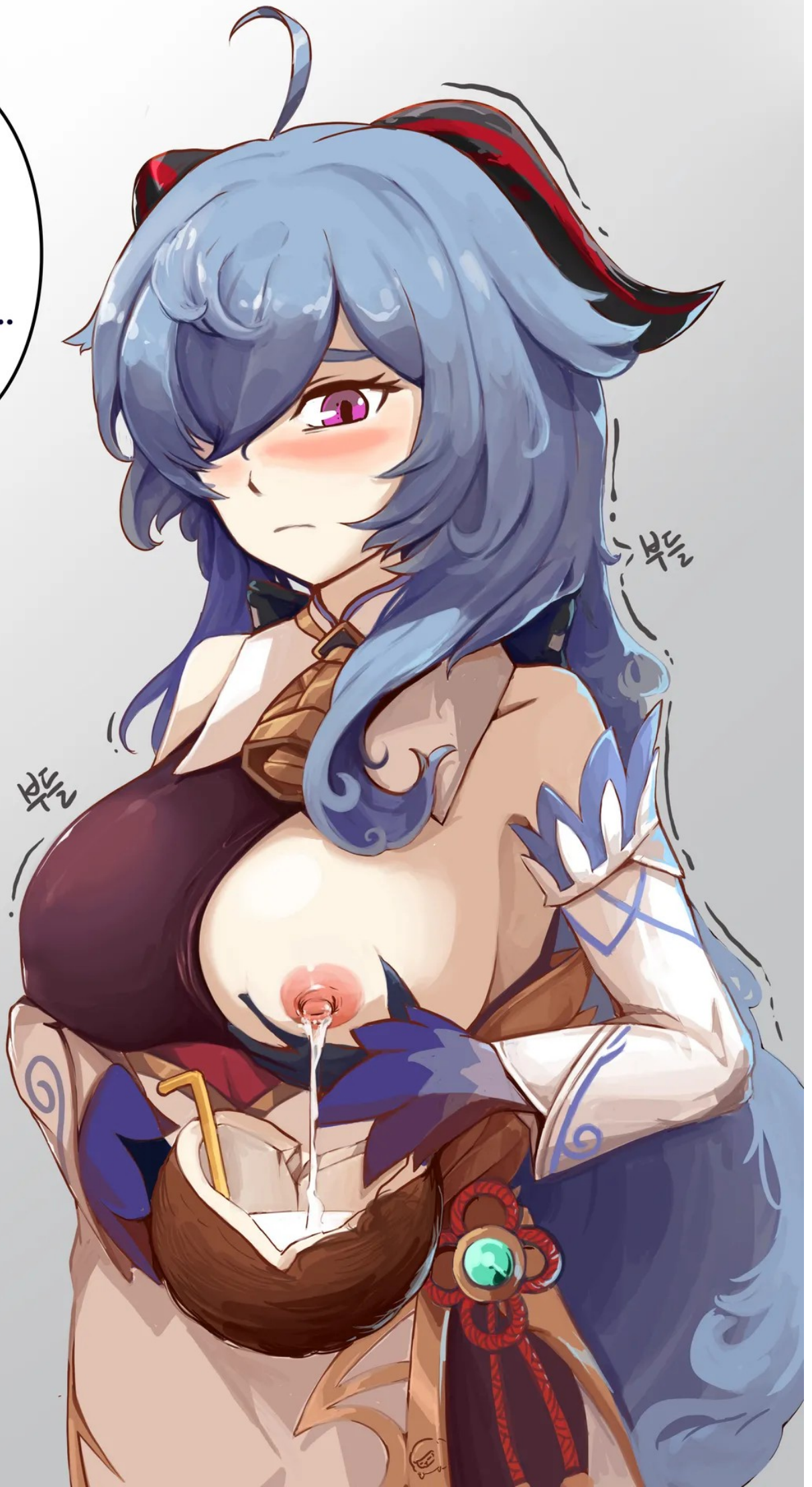
하지만...
이렇게
부끄러운
모습으로는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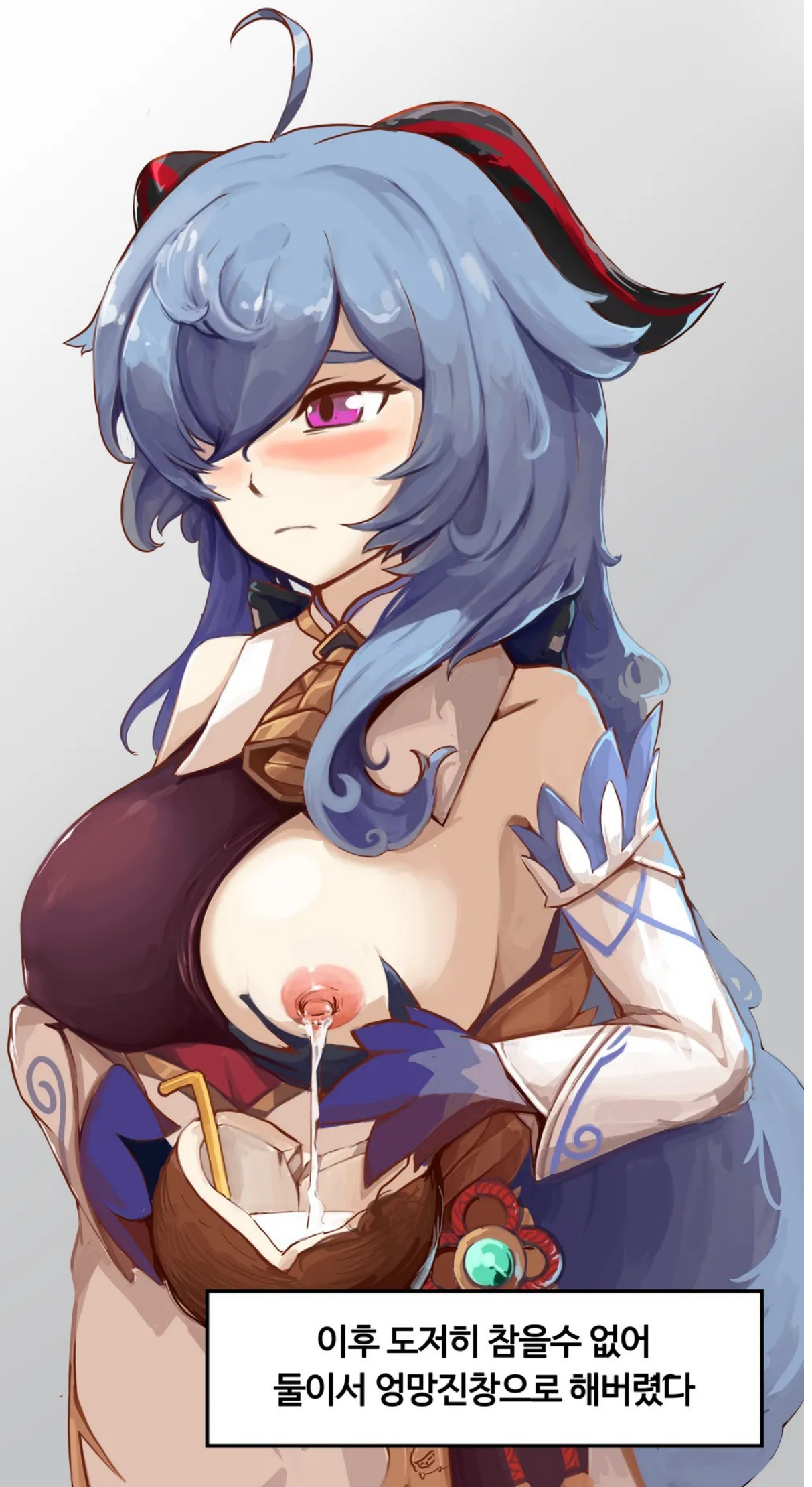






그...
그렇게
뺨히
쳐다보시면...





이후 도저히 참을수 없어
둘이서 엉망진창으로 해버렸다

